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구 분	내 역					
출장자	소속	글로벌전략연구본부	성명	김엄지	직급	부연구위원/실장
		극지전략연구실	성명	한다희	직급	연구원
출장목적 (중복선택 가능)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관련사업 (예산항목)	- 「북극권 해양수산 협력기반 강화사업」(일반)					
출장기간	2026.04.13.(월) ~ 2026.04.20.(월) (6박 8일)			출장지	미국(알래스카)	
출장일정	일자	방문지	주요업무*		항공편	
	4.13(월)	부산→김포→인천	이동		항공(한다희)	
	4.13(월)	인천(16:40)→시애틀 →앵커리지(16:00)			대한항공, 알래스카 항공 KE 041(인천→시애틀) AS 189(시애틀→앵커리지)	
	4.14(화)	앵커리지	오전/오후: Arctic-Pacific Security Dialogue 참석 오후: TSC 업무협의			
	4.15(수) ~ 4.17(금)	앵커리지	2026 Arctic Encounter 참석			
	4.15(수)	앵커리지	오전/오후: 2026 Arctic Encounter 참석			
	4.16(목)	앵커리지	오전/오후: KMI '북극항로' 세션 개최 및 2026 Arctic Encounter 참석 오후: 북극 유관기관 업무협의			
	4.17(금)	앵커리지	오전/오후: 2026 Arctic Encounter 참석			
	4.18(토)	코츠뷰	오전/오후: Arctic Encounter Summit - 현지기업 방문			
	4.19(일) ~ 4.20(월)	앵커리지(06:00)→시애틀 →인천(16:40)+1	이동		대한항공, 델타항공 DL 928(앵커리지→시애틀) KE 042(시애틀→인천)	
	4.20(월)	인천→김포→부산			항공(한다희)	
출장성과	○ 출장목적 달성 정도 - 2026년 북극엔카운터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북극항로'를 주제로 세션을 개최하고, 한국의 북극 정책 추진 동향을 공유하며 향후 국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 미국의 북극 안보·산업 정책 동향을 파악을 통한 한미 협력 방안 모색 ○ 주요 성과 - 미국 Ted Stevens Center(TSC)*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2026년 북극협력주간 참석 의사를 확보하는 등 한-미 북극 협력 기반 강화 * 미국 국방부 산하 북극안보연구기관 - 북미 지역 정부·산업·연구기관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의제 공유					

향후계획	○ 출장 성과 공유 계획 - (대국민) 극지전략연구실 SNS 채널을 활용하여 국제 세미나 참석 결과 및 주요 논의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국제협력 성과 확산 추진 - (정부부처) 2026년 「북극정책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및 국내기반 조성사업」 최종보고서에 'Arctic Encounter Summit 2026' 참석 결과 제출 및 유관기관과 공유 예정 ○ 정책화 등 활용 계획 - 북극 연구 기관과의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북극 협력 의제를 구체화하고, 향후 북극 정책 및 국제협력 사업 추진에 활용 예정 - 2026년 북극협력주간(APW) 중 KMI-TSC 공동세션 추진 등 한·미 북극 협력 확대를 위한 후속 협력사업 발굴에 활용 예정
참고 등 특이사항 (건의사항)	○ 출장계획 변경사항 - 정병하 극지대표 이란 특사 긴급 파견으로 인해, 정부대표단 활동 업무는 세션 참가로 대체 ○ 참고사항 - 원내 우수 인재 유치 및 글로벌 인재풀 확대를 위해 AES 참석자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KMI 소개 및 채용 홍보 활동 수행

* 주요업무 수행 결과 별지 작성 후 첨부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유형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업무①	Arctic-Pacific Security Diagluge(APSD) 참가 (4.14, 화)
수행계획	□ 개요 - (일시/장소) 2026.04.14.(화) 08:00~16:00 / Hotel Captain Cook 회의실 - (주요 참석자) Randy Kee Ted Stevens Center 소장, Matthew Hickey DIU OnRamp Hub(MN) 디렉터, Jackson Blackwell ClearPath 정책자문관, Brian Plourde LEMA CEO, Isaac Vanderburg Launch Alaska CEO, Mead Treadwell 前 알래스카 부지사(前 美 북극연구위원회 의장), Buddy Custard Alaska Chadux Network CEO, Katsuhiko Takahashi 일본 외무성 대사, 박꽃님 외교부 녹색환경외교과장, Ruth L. Perry 美 국무부 해양·국제환경과학국 수석부차관보 대행 등
수행결과	<Panel: Innovation for the Arctic-Pacific> □ 전략적 위치와 빠른 혁신이 결합될 경우, 그 효과는 전장에 국한되지 않고 지정학 전반에 걸쳐 비대칭적 이점을 창출하고 있음 -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사례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드론 활용과 같이, 공격 비용 대비 방어 비용이 높은 구조가 형성되는 양상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비대칭성은 전통적 군사력 위위보다는 기술 기반의 혁신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기술적 측면에서는 일정 수준의 성과를 거두었더라도, 경제성 측면에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한계가 존재함 □ 가장 낙관적으로 보는 기술은 무엇인지? - (AI 기반 인프라) 지속적 영역 인식을 위한 AI 센서 네트워크는 소프트웨어를 넘어 실제 인프라(e.g. 수산물 가공공장)에 적용되고 있어 혁신을 가속화하는 유망 기술로 평가됨 - (지열) 차세대 지열 시스템(Enhanced Geothermal Systems)은 미국 전역의 기저부하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핵심 에너지원으로서 유망한 기술임 - (다중수중시스템) 다중모드 수중 시스템(Multimodal Underwater Systems)은 다양한 수중 통신 방식을 통합하고 AI를 결합함으로써 해양 환경에서의 탐지·통신·운용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유망 기술로 평가됨 □ AI 기반 분산형 지능 시스템은 북극 환경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소형 자산(장비)을 여러 대 활용하여 대형 자산 대비 유연성과 확장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수중·공중 군집, 수중-우주 간 데이터 전송 체계 등에서 AI의 역할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해당 기술은 핵잠수함 대응 및 해저 매핑 등 군사과학적 활용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이중용도를 지님 - 미래 이중용도 인프라는 평시에는 저전력 상태로 최소 신호만 송신하다가 위협 발생 시 활성화되는 구조로 구축될 것임 <Economics of Arctic Maritime Security> □ 북극 해운은 접근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뢰성’ 부족이 핵심 제약 요인으로, 안전·운용 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로 제시됨 - 기후변화, 기술발전, 자원수요 등으로 인해 북극 접근성은 확대되는 추세임 - 쇄빙선은 과학·안보·환경 대응 전반에서 필수 자산으로 부상했으며, 동맹국 간 협력이 중요함 - 북극항로는 신뢰성 부족으로 인해 산업계 참여가 제한적인 상황으로, 신뢰성(운항 예측 가능성), 안전성(사고 대응 체계), 인프라(항만·쇄빙선·지원 시스템 등) 구축이 핵심 추진 과제임 □ 북극 해운 경제 모델은 국가별로 상이한 구조를 보이며 정책적 접근 차이가 존재함 - (미국) 민간 비용 부담 중심 구조에서 경쟁 도입으로 자원이 분산되며, 대응 역량이 약화됨 - (캐나다) 정부 주도 인프라 투자 및 필요시 비용 회수 구조를 통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함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②	TSC 업무협의 (4.14, 화)
수행계획	□ 개요 - (일시/장소) 2026.04.14.(화) 16:30~17:30 / Hotel Captain Cook 회의실 - (주요 참석자) Randy TSC 소장, Mads AEC 사무국장, 김형록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KMI 김엄지 실장, 한다희 연구원 등
수행결과	□ 북극 안보·산업 정책 동향 및 협력 방향 논의 - 최근 북극 논의가 안보·인프라·산업정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에너지·항만·쇄빙 역량 등을 중심으로 미국의 북극 정책 동향을 공유함 - 북극 접근성 확대에 따라 북극 해운·공급망·인프라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북극 해운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함 - AI 기반 센서 네트워크, 위성 기반 해빙 관측, 무인 관측 시스템 등 신기술 활용 가능성과 데이터 기반 운영체계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한국은 북극이사회 옵서버 활동, 국제협력 및 해양 거버넌스 참여 등을 통해 북극 협력에 참여하고 있으며, 차세대 쇄빙연구선 개발과 친환경 선박 기술 역량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함 □ 북극 협력 및 대응체계 강화 필요성 논의 - 북극이 기후·에너지·물류·과학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된 전략적 지역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함 - 안정적인 북극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투자와 기술 협력, 국가 간 협력체계 강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함 - 올해 12월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북극협력주간 참석을 제안하고, 향후 북극 관련 국제협력과 교류 네트워크의 지속적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업무③	북극엔카운터 참가(Dual-Use Infrastructure in the North - Research, Launch, and Innovation) (4.15, 수)
수행계획	□ 개요 - (일시/장소) 2026.04.15.(수) 10:20~11:10 / Tikahtnu B - (주요 참석자) Thomas Dans 美 북극연구위원회 위원장, Emilie Åsberg Havguard AS CEO, Matt Beck Quartermaster 운영부사장, Ethan Tyler Aleut 공공정책토지 담당 수석이사
수행결과	□ 미국 북극연구위원회(USARC)는 과학 거점 재구축을 목표로 '서부 알류산 이니셔티브'를 구성 중임 - 이 프로젝트에서 아닥(Adak)섬과 아투(Attu)섬은 지리적 특성상 군사·과학 관측에 유리한 전략 거점임 - 관측을 통해 연어 감소, 수중 생태, 환태평양 지질 안전성 연구에 기여 가능하며, 북극 해저의 약 75%가 미탐사 상태인 점을 고려할 때 해저 지도화에도 기여가 가능함 □ 북극 인프라는 군사·산업·환경을 통합하는 복합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하며, 지역 주민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기술은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풍력 발전, 환경 모니터링 등 이중용도 활용을 고려하여 개발되는 추세임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e.g. 상업 선박 기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안전 및 효율 개선 → 데이터 축적 → 군사 및 보험 활용 - 인프라 부족 및 단일 실패 위험이 투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 투자를 통한 민간 투자 유도가 필요함
업무④	북극엔카운터 참가(Can Industry Bridge the Gap in International Diplomacy?) (4.15, 수)
수행계획	□ 개요 - (일시/장소) 2026.04.15.(수) 11:25~12:25 / Kahtnu 2 - (주요 참석자) Kelsey Frazier Alaska Center for Energy and Power 연구원, David Palmer KBR 북극 안보 개발 전략가, Melanie Welsh Alaska Unlimited 사무총장, Kristi Swain 알래스카대학교 페어뱅크스 연구원
수행결과	□ 북극 개발 및 안보 대응에서 산업 주도의 실행력과 통합적 접근이 핵심 과제로 제시됨 - 인프라 구축과 시스템 구현은 산업이 주도하며, 정부-학계 중심 접근에는 한계가 존재함 - 기술 발전에 따른 위험 고도화로 기술→위험→재개발의 순환 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속도와 실행력 중심의 대응이 필요함 - 산업-군-연구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지역 중심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구조적 투자 및 정책 기반이 요구됨 - 제한된 경제적 기회로 인해 지역 주민의 지속가능한 생계 기반이 취약한 상황임 -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축매 프로젝트*'와 현장 중심의 지속적 투자가 필요함 * e.g. Trans-Alaska Pipeline System: 북극해의 프루도 베이(Prudhoe Bay) → 브룩스 산맥(Brooks Range) → 유콘강(Yukon River) → 발데즈(Valdez) 항구로 이어진 석유 운송 파이프라인 - 산업 관점에서는 투자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일관성, 군과 민간을 동시에 지원하는 이중용도 인프라 구축,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바탕으로 신뢰 가능한 공급망 구축이 핵심임 - 북극은 더 이상 평화의 공간이 아닌 경합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및 외교 메시지의 변동이 산업 활동과 목표 달성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업무⑤	북극엔카운터 참가(The United States, World Order, and the Arctic) (4.15, 수)
수행계획	□ 개요 - (일시/장소) 2026.04.15.(수) 14:10~15:10 / Tubughnenq'3 - (주요 참석자) Rasmus Gjedssø Bertelsen UiT 북극대학 정치학 교수(Barents Chair), Federica Eyja Scarpa UiT SATA 2.1 총괄 코디네이터, Brandon Boylan 알래스카대학교 페어뱅크스 북극·북방연구 소장, Diane Hirshberg 알래스카대학교 앵커리지 사회경제연구소(ISER) 소장, Jennie Kellie 알래스카대학교 페어뱅크스 박사과정, Samuel Krakower 美 해안경비대 북극 펠로우(중령)
수행결과	□ 북극은 서방(NATO) vs.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경쟁 구도로 재편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중국·인도 협력 확대가 주요 특징으로 나타남 - 러시아는 중국·인도와의 무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는 러시아 북극 투자를 확대 중임 - NATO는 북극 내 확장을 지속하며 'Arctic Sentry' 등을 통해 역지력 및 방어 역량 강화를 추진 중이나, 미국의 그린란드 관련 입장, NATO 내부 이견 등 서방 진영 내에서도 일부 균열이 발생 중임 - 북극은 점차 접근 가능한 글로벌 공공 영역으로 전환되며, 태평양 북부와 북극해를 연결하는 통로인 베링해협이 새로운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음 - GIUK Gap(그린란드~아이슬란드~영국)은 성공적인 해상 통제 사례이며, 베링해협에서도 유사 모델이 필요함 □ 미국은 기후변화와 러시아·중국에 대한 위협을 인식하고 있으나, 정책적 일관성과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대응 역량이 제한적인 상황임 - 미국 북극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과 자원 개발 간 정책 방향이 반복적으로 변화하며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임 - 군사 투자 확대, 쇄빙선 확충, 노움(Nome) 항만 개발* 등 긍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과학 연구 축소, 미국 해양대기청(NOAA) 예산 삭감, 북극대사 공석 등 한계가 병존하는 상황임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알래스카 서부에 위치한 노움(Nome) 항구를 북극 심해항으로 확장하는 프로젝트
업무⑥	북극엔카운터 참가(The Golden Channel - China, Russia, and the Race to Dominate North Pacific Fisheries and Arctic Trade) (4.15, 수)
수행계획	□ 개요 - (일시/장소) 2026.04.15.(수) 16:20~17:10 / Tikahtnu B - (주요 참석자) Ruth L. Perry 美 국무부 해양·국제환경과학국 수석부차관보 대행, Douglas Vincent-Lang 알래스카주 어류·수렵국 국장, Paul Dziatkowiec Geneva Center for Security Policy 조정·평화지원 국장, Michael Perkinson Autilus Partners 매니징 파트너
수행결과	□ 미국의 북극 어업 및 무역 정책은 국가안보전략과 동일한 기초를 지니며, 북극 내 경제 활동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협력은 필수적임 -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서반구 내 전략적 거점과 자원을 식별하고,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북극 어업과 무역 역시 이러한 전략 범주에 포함됨 - 북극 활동 증가에 따라 사고 대응·환경 보호·자원 관리 및 법 집행은 단일 국가가 아닌 국제 협력을 통해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북극이사회, 해안경비대 등 다양한 플랫폼이 활용될 수 있음 □ 북극 어업은 공급망·지정학·산업 경쟁이 결합된 복합 이슈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리 역량 및 인프라 강화가 요구됨 - ‘골든 채널’ 이슈는 제재 집행, 정치, 인프라, 특히 러시아·중국의 역할과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 문제와도 연계된 사안임 - IUU 어업 대응을 위해 원산지 표시 강화, 공급망 추적성 확보, 재가공환적 감시 등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함 - 알래스카 지역은 선박·관광·물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대응 인프라 및 연구 역량이 경쟁국 대비 부족한 상황으로, 산업 경쟁력 차원의 대응이 필요함
업무⑦	북극엔카운터 세션 개최 및 참가(Enhancing Cooperation for Safe and Sustainable Arctic Shipping) (4.16, 목)
수행계획	□ 개요 - (일시/장소) 2026.04.16.(목) 11:10~15:10 / Tubughnenq'3 - (주요 참석자) Miguel Roncero EU 집행위원회 국제관계 담당관, Mads Qvist Frederiksen 북극경제이사회 사무총장, 김형록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KMI 김엄지 실장, 한다희 연구원
수행결과	□ 북극 해운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글로벌 물류를 재편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며, 지역 중심의 제한적 인프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됨 - 북극 해운은 글로벌 해운 대비 비중은 약 1% 수준이며, 운항 선박도 약 1,800척으로 전체 선대(약 11만 척 이상) 대비 매우 제한적인 규모임 - 컨테이너가 아닌 어업·일반화물·에너지 운송 중심의 구조를 보이며, 구조적 제약(계절성·인프라 부족·환경 취약성·SAR 역량 부족 등)이 존재함 - 북극 해운은 단순 운송이 아니라 수산·광물·관광·지역 보급을 포함하는 경제 인프라로 기능하는 특성을 보임 □ 북극 해운의 경쟁력은 항로 자체보다 데이터·기술·정책에 의해 좌우되며, 전략 공간으로의 전환이 진행 중임 - 북극 지역이 지닌 해빙 위험, 환경 불확실성, 정보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위성 기반 해빙 관측 기술이 중요함 - 연구선 기반 관측은 시공간 제약이 있어 자동화·상시 관측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며, 향후 북극 해운은 실시간 예측과 환경 모델링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함 - 북극 거버넌스는 기존 다자협력 중심에서 소다자 협력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
업무⑧	북극엔카운터 참가(Powering Access to the Arctic-Icebreakers, Shipping Lanes, and Emerging Trade Routes) (4.16, 목)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수행계획	□ 개요 - (일시/장소) 2026.04.16.(목) 15:45~16:35 / Tikahtnu B - (주요 참석자) Paul Barrett Davie CCO, Stephen M. Carmel 美 교통부 해사청(MARAD) 청장, KMI 김엄지 실장
수행결과	□ 북극항로는 경제성·운용 제약으로 인해 상업 항로로서의 활용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됨 - 북서항로는 수심이 얕고 McClure 해협은 다년생 해빙 문제로 접근이 차단되어 비교적 복잡한 남쪽 경로를 이용해야 하며, 흘수 제한(10m 수준)으로 인해 활용이 제한적인 항로임 - 북극항로는 단순 거리가 아닌 해운 분야의 경제성 평가 기준인 화물 단위당 운송비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이 기준에서 타 항로 대비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이는 북극항로 운항 선박의 규모가 제한되기 때문이며, 대형 컨테이너선의 남방항로(수에즈 운하) 운송이 소형 선박의 북극항로 운송보다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구조임 - 북극점 횡단항로는 수심은 충분하나 사용 가능 기간이 연 3개월 내외로 제한되어 정기적인 노선 운영에 제약이 존재함 - 실제로 열릴 가능성이 있는 항로는 해상 항로가 아닌 해저 항로이며, 횡단북극 해저케이블 네트워크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음 □ 북극항로 활용을 위해 경제성과 안전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제시됨 - 환경 사고 대응 역량이 부족할 경우 운영 통제가 어려운 만큼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임 - 한국의 북극 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협력 확대를 목표로, 기존의 경제성 중심 북극항로 접근에서 나아가 안정성·지속가능성·다자협력 중심으로 추진 중임
업무⑨	북극 유관기관 업무협의 (4.16, 목)
수행계획	□ 개요 - (일시/장소) 2026.04.16.(목) 17:00~18:00 / Dena'ina Civic and Convention Center 회의실 - (주요 참석자) Mads AEC 사무국장, Miguel DG MARE 국제협력담당관, Jackson ClearPath 정책자문관, KMI 김엄지 실장, 한다희 연구원 등
수행결과	□ 북극항로 운영 관련 데이터·기술 기반 협력 필요성 논의 - 북극경제이사회는 북극항로, 항만 및 공급망 연계를 중심으로 한 산업·물류 협력 필요성을 언급하며, 관련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함 - 북극항로 운영 과정에서 기후·쇄빙선·제도적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공유함 - 위성 기반 해빙 관측 기술, 실시간 데이터 활용 및 무인 관측 시스템(ARGO-AUV 등)을 활용한 해양 관측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함 - 해양환경 데이터 분석·공유 체계 구축과 현장 관측 데이터 및 위성 데이터 간 연계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향후 북극 해운 운영 과정에서 실시간 예측과 데이터·기술 기반 활용의 중요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을 공유함 □ 북극 지역 인프라 및 지역개발 동향 공유 - 알래스카 지역 내 인프라·에너지·주거 및 지역개발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공유함 - 기후변화 대응과 항만·물류 인프라 및 지역 연결성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함
업무⑩	북극엔카운터 참가(The Future of Arctic Energy - Security, Markets, and Policy) (4.17, 금)
수행계획	□ 개요 - (일시/장소) 2026.04.17.(금) 10:00~10:50 / Tikahtnu B - (주요 참석자) Mark Begich 前미국 알래스카주 상원의원(現 Northern Compass Group CEO), Steve Wackowski Alaska Oil and Gas Association CEO, Simen Ekblom 주미 노르웨이 대사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관 경제참사관, Eleanor Kiloh 주샌프란시스코 영국 총영사, Hugh Short Pt Capital CEO
수행결과	□ 알래스카 가스라인 프로젝트는 지난 20년 대비 글로벌 에너지 환경 변화와 지역 수요 요인을 반영하여 추진 여건이 변화함 - 알래스카 가스 개발은 글로벌 LNG 시장 변화, 중동·러시아 전쟁, 알래스카 남중부 지역의 가스 고갈 문제 등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함 - 이에 따라 외부 의존(수입) 또는 북슬로프 가스 개발이라는 선택지가 존재하며, 북슬로프 가스 프로젝트는 인허가 및 부지 확보가 완료된 상태이나 이해관계자 간 합의 도출에 어려움이 존재함 -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서 광물·수자원·에너지 자원의 중요성은 AI 및 데이터센터 확산과 함께 더욱 확대되는 추세임 - 지정학적 긴장이 투자 변수로 작용하며, 미국-캐나다-유럽 간 관계 변화로 국제 협력 여건도 제약되는 상황임 □ 천연가스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중간 단계 에너지'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경제 및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지님 - 알래스카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50% 달성을 목표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 중임 -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완전 대체가 어려워, 석탄·디젤 대비 저탄소 에너지원인 천연가스를 전환기 에너지로 활용 중임 - 가스라인 수익은 지역사회 필수 인프라(병원·학교 등) 유지와 직결되기에 에너지 프로젝트는 식량 생산 및 빈곤 완화와 밀접하게 연계되는 핵심 요소임
업무⑩	북극엔카운터 참가(The World Is Watching - Iceland and Greenland on Power, Sovereignty, and What Comes Next) (4.17, 금)
수행계획	□ 개요 - (일시/장소) 2026.04.17.(금) 10:50~11:15 / Tikahtnu B - (주요 참석자) Rachel Kallander AES CEO, Svanhildur Hólm Valsdóttir 주미 아이슬란드 대사, Jacob Isbosethsen 그린란드 미국·캐나다 대표
수행결과	□ 아이슬란드-그린란드는 역사적 연대와 자결권을 기반으로 협력을 지속하고 있음 - 양국은 1,000년 이상의 공통 역사 속에서 경제위기 및 긴급상황 시 상호 협력해 온 관계로, 자결권 존중이 핵심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음 - 수산, 청소년 교류,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아이슬란드는 그린란드 인프라 구축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 중임 - 그린란드는 외부 강대국의 지속적 관심 속에서도 자결권과 영토주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유지함 □ 그린란드는 자결권 보호를 전제로 미국과의 협력을 추진 중이며, 북극공동체 간 연대 중요성을 강조함 - 그린란드와 미국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나 최근 정치적 긴장으로 협력 환경이 일부 제약되는 상황이며, 양측은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하여 안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함(단, 자결권 및 영토주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님) - 그린란드는 수출의 약 90%가 수산업에 의존하는 구조로 경제 다변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관광 등 신규 산업 확대와 함께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업무⑪	북극엔카운터 참가(Arctic Governance-Power, Participation, and the Future Rules of the North) (4.17, 금)
수행계획	□ 개요 - (일시/장소) 2026.04.17.(금) 16:10~17:00 / Tikahtnu B - (주요 참석자) Kenneth Høegh 북극이사회 고위관리회의(SAO) 의장, Piotr Rychlik 폴란드 외교부 북극·남극 담당 대사, Virginia Mearns 캐나다 북극 담당 대사(SAO), Torsten K. Nielsen 덴마크 외교부 북극 고위관리(SAO), George Noll 미국 국무부 북극 고위관리(SAO)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수행결과	□ 북극이사회는 러우 전쟁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핵심 거버넌스 체제로서 기능을 유지하며 협력을 지속 중임 - 6개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정기회의(온라인)를 통해 프로젝트 발굴과 의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공동성명(선언) 도출 노력도 함께 진행 중임 - 북극은 비북극권 국가의 참여도 가능하나, 북극 국가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중요함 - 미국은 경제안보와 국가안보에 초점을 맞추어 북극 접근을 강화하고 있음 - 캐나다에게 중요한 것은 북극이사회 활동이 지속되는 것과 워킹그룹 성과가 지역사회에 실질적 기여를 하는 것임 - 전반적으로 협력은 감소하는 반면 관심은 증가하는 상황에서, 북극 거버넌스 유지와 실질적 성과 창출이 핵심 과제로 제시됨
업무⑬	Arctic Encounter Summit - 현지기업 방문 (4.18, 토)
수행계획	□ 개요 - (일시/장소) 2026.04.18.(토) 08:00~18:00 / Kotzebue - (주요 참석자) Rachel Kallander AES CEO, NANA Regional Corporation, KMI 김엄지 실장, 한다희 연구원 등
수행결과	□ (기업 개요) NANA Regional Corporation은 1971년 알래스카 원주민 정착법(ANCSA)에 따라 설립된 알래스카 원주민 기업으로, 북서 알래스카 지역 기반 약 1만5천 명 이상의 이누피아트(Iñupiat) 주주가 소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운영 중임 - NANA는 약 220만 에이커 규모 토지의 지상·지하 권리를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은 수렵·어업·채집 등을 통해 생계활동 중임 - 지역 내 마을 간 도로 연결이 없어 소형선박·스노우머신·항공기·ATV 등을 주요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 □ (경제·산업) NANA는 건설·시설관리·물류·IT 분야 사업 운영 중이며, FY2025 기준 총매출 약 32억 달러(Gross Revenue), 직원 약 1만5천 명 규모임 - 레드독(Red Dog) 광산은 세계 최대 수준 아연광산 중 하나로 소개되며, 광산 탐사 및 운영은 원주민 전통 생계활동 보호 원칙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음 - 광산 운영은 지역 고용 및 Northwest Arctic Borough 재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2031년 광석 고갈 예정에 따라 광산 수명 연장 필요성을 언급함 □ (우선 과제) NWALT(Northwest Arctic Leadership Team)는 2026년 주요 우선 과제로 △레드독 광산 운영 지속 △Deering K-12 학교 신축 △보건·환자 주거 인프라 확충 △Selawik 위생시설 교체 △주택 공급 확대 등을 제시함



* 주요 업무 내용을 10개 내외로 작성

* 업무별 수행 결과는 각 700자 이내로 작성(관련 사진, 도표 필요시 추가)

* 보고서 총 분량은 10페이지 내외로 작성(필요시 조정)